

1 개요

시흥본향당본풀이는 성산을 시흥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갑사가 사온 천에 신이 따라와 그 딸에게 신병을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에 당신으로 좌정하였고, 그 당을 맡던 부씨할망이 강도살해를 당하니 주민들이 범인을 찾아내어 징벌하였다.

2 내용

시흥리 송갑사가 양태 진상을 갔다가 저렴한 포목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 돌아왔다. 이를 본 딸이 국상(國喪) 중이어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땅을 파고 묻어버리라고 하였다. 송갑사는 그 말에 따라 항아리에 넣어 수령이 많은 팽나무 아래 파묻었다. 이로 인하여 송갑사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수의를 짓자고 포목을 꺼내려고 두껍을 열어보니 만주에미가 들어 있었다. 이를 보고 딸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병이 들었다. 현씨일월에게 점을 보니 포목에 따라온 신이 있어서 그러니 굿을 하라고 하였다. 이에 큰굿을 시작하여 초공연맞이에 이르니 죽어가던 딸이 자신의 방에 있는 무명으로 청룡, 백룡을 놀리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니 아기씨가 살아났다. 그 연유로 당신으로 모셨다.

두루웨할망 부씨할망이 열여덟에 당을 맡으면서 당에서 생활하였다. 어느 날 신흥리 한주 아들이 부씨할망을 구타하여 죽이고 곡식, 의복, 무구 등을 훔쳐낸 뒤에 당에 불질러 버렸다.

현씨 상단골이 범인을 전도를 다니다가 김씨 심방에게 가서 점을 보려고 하는데, 김씨 심방이 내어놓는 무구를 보니 부씨할망 물건이었다. 김씨 심방에게 물으니 한주 아들에게 샀다고 하였다. 현씨 상단골은 한주 아들을 데려다가 귀양정배를 보내고 부씨할망의 원수를 갚았다.

3 특징

이 자료는 당신의 내력과 당을 지키던 심방의 내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의 내력은 송갑사 따님아기의 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송갑사 따님아기의 내력은 전형적인 조상 신분풀이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물에서 가지고 온 천에 따라온 신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병을 앓고 굿을 통하여 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모시기 시작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심방의 내력은 부씨할망이 강도살해를 당하고 무구까지 잃어버린 뒤에 단골들이 범인을 잡아 징벌한 사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매우 사실적인 내용이어서 늦은 시기까지 당 신분풀이가 구비역사의 구실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핵심어

송갑사, 포목, 만주에미, 신병, 큰굿, 초공연맞이, 청룡, 백룡, 두루웨할망, 부씨할망, 시흥리, 한주 아들, 무구, 상단골, 귀양정배, 팽나무

5 원전 서지사항

시흥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6 관련 자료

시흥 한집본풀이(허남춘 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